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044-203-5220), 김양지 사무관 (044-203-5225)

산업부 2차관 석유시장 동향 및 비상시 대응체계 긴급 점검

- 석유공급차질에 대비한 긴밀한 민관합동 대응체계 유지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는 '16.1.8일(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갈등 확대 등 중동지역 정세 급변에 따른 국제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수급 전망과 비상시 국내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

< 석유시장 긴급 점검회의 >

□ 일시/장소 : '16.1.8일(금) 15:00 / 석탄회관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석유시장전문가, 정유4사 등 10명

□ 주요 논의내용 : 중동 정세 변화와 향후 전망, 최근 유가 및 석유시장 동향 점검, 정유업계 대응방안

- 연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국교를 단절하면서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석유공급차질 가능성에 대한 석유시장의 우려가 확대된 데에 따른 조치
- '15.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수입원유의 82%를 중동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각각 30%, 4%를 차지

< 원유 수입실적 (단위: 천B)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4.1~11월	'15.1~11월	동기대비 증감률(%)
합계(A)	92,704	94,729	91,508	92,752	84,670	92,794	9.6
중동(B)	80,791	80,597	78,681	77,892	70,786	76,437	8.0
사우디	29,135	30,305	28,659	29,259	26,886	27,939	3.9
이란	8,718	5,615	4,821	4,492	4,094	4,062	△0.8
비중(B/A)	87.1%	85.1%	86.0%	84.0%	83.6%	82.4%	-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석유배장량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 국제 석유공급량의 13%와 4%를 공급('14년 기준, BP)

** 자료: 석유공사

- 국제유가(Dubai유 기준)는 '16.1.7일(목) 현재, 배럴당 28.0불을 기록, 20불대에 진입하며 하락세를 지속 중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양국 대립이 실제 공급차질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장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반전

< 국제유가동향 (단위: \$/B) >

구분	'12.12월					'16.1월			
	1주	2주	3주	4주	5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두바이	39.4	36.9	33.7	32.2	32.4	32.5	31.7	30.8	28.0
브렌트	43.7	39.8	37.5	36.9	37.0	37.2	36.4	34.2	33.8
WTI	40.9	36.9	35.8	36.6	37.1	36.8	36.0	34.0	33.3

- 중동 지역 정세 전문가들은 급변 사우디-이란 갈등 상황이 무력 충돌 등 극단적인 상황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다만, 지역 내 종파 갈등, 패권 경쟁 등이 심화될 경우 국지적 돌발사건 발생 가능성도 계속 존재함을 지적
-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석유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사우디-이란간 갈등으로 OPEC內 공급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가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양국 갈등이 확대될 경우 공급차질 발생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도 차관은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높고, 원유수입을 중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수급과 유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만에 하나, 중동 정세 불안이 급격하게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원유수급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각 사별로 대체 원유도입 경로 확보 등 자체 대응책을 점검하고, 유사시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양지 사무관(☎ 044-203-522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N
MINI
TRAI